

# 한국근대구상미술의 미의식

## : 유사성의 유형에 따른 재현방식 분석을 중심으로

이 주 영\*

- I. 머리말
- II. 구상미술의 재현방식과 유사성의 유형
- III. 유사성의 유형에 따른 작가들의 작품세계와 미의식
  - 1. 외적 유사성
  - 2. 본질의 유사성
  - 3. 창안적 유사성
- IV. 한국근대구상미술에 나타난 미의식
- V.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근현대미술이 어떠한 미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다. 주로 미술비평의 분야에서 행해진 몇몇 업적들에는 개별 작가들이 지닌 미의식, 또 주로 시대별 집단운동의 미적 이념이 밝혀져 있지만 한국근현대 미술 전반에 내포된 미의식의 특성을 크게 윤곽 짓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지 못했다. 이러한 정황은 그만큼 미의식에 대한 연구가 어렵고 논의가 수렴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일찍이 한국전통미술을 연구했던 미술사가·미학자들도

이미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별 장르의 구체적인 탐구를 통해 한국적 미의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등 미술의 세부장르마다, 또 각 시대마다 다양한 미적 가치와 인간의 온갖 정서를 반영하는 여러 개념들이 고유한 특성과 차이를 드러내며 한국적 미의식을 다양하게 대변하였다.<sup>1)</sup>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합하여 한국인들의 삶과 문화를 관통하는 한국적 미의식의 보편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연구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수렴되는 전통미술의 특성은 ‘자연주의’<sup>2)</sup>, 세부적 기교에 집착하지 않는 ‘대범성’<sup>3)</sup> 등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적 미의식은 너무도 다양하여 대부분 직관적으로 추출된 몇몇 개념을 모든 시대, 모든 장르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또 그러해서도 안 된다고 연구자들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모은다.<sup>4)</sup>

비교적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전통미술의 미의식에 대한 연구보다도 근현대미술의 미의식을 연구하고 공통성을 수렴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대개 1910년대 양화의 도입기로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근대미술은 한국역사의 그 어떤 시기보다도 급변하는 정치·사회·문화적 격동기를 겪으며 이어져 내려왔다. 일본을 통하여 유입된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전통적인 미적 가치관과 현대적인 감성이 혼재하게 된다.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예술의욕을 지닌 여러 미술운동이 일어났고 무수히 많은 작가들이 그 영향을 받

- 1) 미학자들과 미술사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한국적 미의식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여러 개념이 나왔다. 예를 들면 자연주의, 소박, 단순, 온아, 무기교, 평범, 인간미, 화려, 고상, 웅대, 장려, 우아함, 천진성, 대범성, 낙천성, 해학, 유머, 그 밖에 ‘멋’, ‘비에’, ‘한’ 등의 개념이 그것이다. 문화일반과 음악분야에서는 풍류, 신명, 일탈(逸脫)등의 개념도 대표적인 미의식으로 거론된다.
- 2) 고유섭, 김원용, 안휘준은 ‘자연주의’를 한국미술을 관통하는 가장 큰 특성으로 들었다. 이 자연주의는 서양미술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주의(Naturalism)’와는 다른 ‘한국적 자연주의’이다. 이는 ‘자연에 대한 애착’과 ‘자연 현상의 순수한 수용’을 의미한다. 김원용은 자연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재현하려는 자연주의요, 철저한 아(我)의 배제이다”(조요한, 『한국미의 조명』, 열화당, 1999, p. 55).
- 3) 안휘준, 「한국의 회화와 미의식」, 문명대 외, 『한국미술의 미의식』, 정신문화연구원, 1984, pp. 133-194, 특히 p. 180.
- 4) 문명대 외, 『한국미술의 미의식』, p. 9, p. 179 참조.

\*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연구원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G00014).

며 개성적인 작품활동을 하였다. 이들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호소력있게 다가오는 정서와 미적 가치, 삶 속에 내재된 진실을 고유한 형상화방식을 통해 반영해왔다. 이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재를 전달하고자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미의식이 존재한다. 한국적 미의식이란 예술과 문화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 민족의 미에 대한 정서적 핵심이다. 미의식은 각 작가들마다, 또 개별 작품마다 고유하게 나타난다.

많은 어려움을 가정하지만, 연구자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고유한 미의식을 통합하여 한국근현대미술의 미의식의 특성을 크게 추출해내는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루는 연구범위가 넓고 다양한 미술운동들을 모두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술을 어느 정도 유형화시켜 분류한 뒤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연구자는 재현방식에 따라 미술유형을 구상과 추상으로 구분했고 본 논문에서는 그 첫 번째 단계로서 구상미술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구상미술은 한국근현대미술사를 이끌었던 선구자들이 많은데다 추상미술의 확산보다 시기적으로도 앞서 있어서 미의식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거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연구범위와 대상은 1910년대 양화의 도입기에서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서양화, 한국화, 조각 분야의 대표 작가들을 선정하여 그들의 작품을 재현방식과 미의식의 측면에서 각각 탐구하였다.<sup>5)</sup> 작품의 형상화방식에서 대상과의 외적인 닮음, 즉 ‘유사성(resemblance)’이 다소라도 작용하는 경우 ‘구상’으로 분류하였다. 세부 장르는 구상적 이미지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회화를 주로 대상으로 삼았지만, 조각분야의 대표작가도 몇 명 포함시켰다.

구상미술은 대개 사실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형상화방식의 미술로 알려져 있지만 연구자는 구상미술도 재현방식에 따라 유형이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

5) 구상미술을 사실적 재현기법을 사용했던 미술로 본다면 한국근현대미술사 연구를 통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민중미술과 극사실주의 경향의 미술이 연구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 미술운동은 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확산되었는데, 형상언어의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대중에게 친숙한 형상언어를 통해 민중미술은 사회적 삶의 리얼리티를 비판적으로 전달하고자 했고 극사실주의 경향은 사실적 환영을 통해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대상에 대한 냉철한 비판적·분석적 태도를 갖게 하는 측면이 강했다. 이 두 미술경향은 종래의 구상미술이 지녔던 미의식과는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논문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다. 그리하여 작가들이 실재를 어떤 형상화방식으로 담아내고자 하는가에 따라 재현방식을 세분화하여 유사성의 원리를 1. 외적유사성, 2. 본질의 유사성, 3. 창안적 유사성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분야에 속하는 주요 작가들을 선정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였고 이들의 대표작들에 나타난 미의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미의식을 추출하기 위한 개념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미학·미술사학자들의 연구를 참조하여 학자들이 거론한 다양한 개념들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작가들의 미의식을 유형별로 수렴하였고 다시 이를 총괄하여 미의식의 보편성을 찾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 II. 구상미술의 재현방식과 유사성의 유형

구상미술의 미의식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구상미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미술에서 구상(具象) 또는 형상(形象, Figuration)이란 말은 추상(Abstraction)과 대비되는 사실적 경향을 통칭하는 말로 통용되어 왔다. 구상미술(具象美術)<sup>6)</sup>이란 실제로 존재하여 눈에 보이는 여러 대상이나 또는 상상할 수 있는 대상을 사실적인 기법으로 표현하는 미술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또 이 말은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서 ‘재현’이란 말로 대체되어 쓰였다. 미술의 오랜 형상화방식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의도하는 바를 형상을 통해 ‘다시-보여준다(re-present)’는 점에서 ‘재현(再現, representation)’으로 정의되었다. 미술은 시각적인 매체를 통한 재현방식을 보여준다. 그런데 대개 평론가들이 재

6) 구상미술이란 용어가 부각되어 쓰이기 시작했던 것은 20세기 전반 이래 추상미술이 광범위하게 유행하게 된 이후 추상과 대립되는 미술경향을 통칭하기 위해서였다. 미술은 그 어떤 경우에도 광진 공간에 추상화(抽象化)의 원리가 적용되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건축이나 공예, 장식미술에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던 추상기법을 제외한다면 회화나 조각을 통해서만 구상이 추상보다 더 지배적인 역사를 이루어왔다. 한국 미술도 그 예외는 아니다. 한국현대미술사를 돌이켜 볼 때도 본격적인 추상을 시도했던 몇몇 선구적인 작가를 제외하고는 1950년대 중반까지는 구상미술이 대세를 이루며 전개되어 왔다. 그 이후는 구상과 추상, 반추상, 또 여러 실험적 경향들이 공존하며 한국현대미술의 장을 풍성하게 이루어왔다.

현미술이라고 할 때는 사실적 묘사에 입각한 화풍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술기법에 의해 표현된 이미지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적 정보를 주는데, 여기서 정보가 소통되는 중요한 방법은 대상과의 '유사성'에 의해서이다. 즉 형태와 색채, 명암 등 시각매체 특유의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의 눈에 인지된 이미지는 어떤 대상을 떠올리게 한다. 말하자면 원래 있던 어떤 것을 다시 나타나게 한다는 의미에서 대상을 '재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미술은 한편으로 재현미술이라고도 불리어왔다. 구상미술은 우리 근현대 미술사에 있어서 형상의 충동을 구현해 온 미술을 일컫는다는 의미에서 또 구상미술 대신 '형상미술'이란 말도 사용된다.<sup>7)</sup>

지금까지 미술논의에서 구상미술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던 용어가 '사실주의', '리얼리즘', '자연주의'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우선 구상미술은 대상을 외적 유사성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기법인 사실적인 기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사실적 묘사방법과 구상은 그 용어가 발생한 맥락에서 볼 때도 구별되어야 하고, 내용적인 관점에서도 구별되어야 한다고 평론가 오광수는 지적한다. 구상은 단지 비구상과 대비되는 미술경향을 총칭하는 신조어라는 것이다.<sup>8)</sup>

구상미술은 사실주의와도 구별될 뿐더러 내용적 관점에서 리얼리즘과도 구별된다고 한다. 리얼리즘의 우리말 의미는 현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기반으로 삶의 진실을 파헤치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주로 문예이론 분야에서부터 통용되어왔다. 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구상미술 작가들은 기법적으로 묘사적, 재현적 태도는 많으나 내용적으로 당대 현실이 지니고 있는 진실을 파헤친다는 리얼리즘 입장을 견지한 작가들은 많

7) 국전시대를 전후한 재현주의 형상과 1970-80년대의 극사실적 형상을 구별하여, 전자의 형상미술에 대하여 후자의 그것을 '신형상미술' 내지는 '신형상'으로 부르기도 한다. 김복영, 『눈과 정신』, 한길아트, 2006, pp. 333-334 참조.

8) "모든 사실적 경향을 구상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60년대 이후의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과 구상은 엄연히 다른 경향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적 경향을 구상 속에 포괄시키는 것도 구상적 경향 속에 사실적 방법을 포괄시키는 것도 다 같이 잘못된 분류다. 구상(Figuration)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은 전후에 와서이며 비구상을 의식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전래적인 묘사 태도인 사실적 방법과는 문맥을 같이 하지 않는다"(오광수, 『한국현대미술의 미의식』, 제원, 1995, p. 244).

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sup>9)</sup> 구상미술의 예술의욕을 일컫는 말로서 '자연주의'<sup>10)</sup>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는데, 이 자연주의라는 말이 현대구상미술에 적용될 때는, 기법적으로는 사실적·묘사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소박한 자연재현이나 자연묘사의 경지를 지칭하는 의미를 주로 담고 있다. 자연을 묘사할 때의 기법에는 양화의 경우 인상주의 화풍이 많이 나타나므로 사실주의와 인상주의가 절충되었다는 의미에서 '절충적 인상주의'<sup>11)</sup>라는 용어도 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재고해 볼 때, 구상미술의 가장 큰 특성은 대상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여주는 재현적인 미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재현미술의 종류를 유사성의 유형에 의해 몇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현된 것을 통해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고 그 관련성 속에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유사성에 의해서이다. 보통 유사성은 대상의 사실적인 묘사에 의해 얻어진다고 생각되지만 이 유사성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대상에 대한 극히 사실적인 접근에서부터 대상의 자취가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되거나 변형되는 단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상미술에서는 대상과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유사성의 유형을 세 가지로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외적 유사성(범주1): 이 범주에서는 자연과 보이는 실재의 외관에 기법적

9)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의 미의식』, pp. 240-241 참조.

10) 한국전통미술의 특징을 지칭할 때 미학자·미술사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자연주의라는 말은 자연의 본질을 파악하고 관조하며 자연과의 합일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깊은 정신적 의미를 내포하는 긍정적 용어이다. 그 경우의 자연주의는 유럽의 미술사나 문학사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다르게 파악되어야 하는데, 즉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 재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연적 관조를 존중하는 한국적 자연주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구의 자연주의가 문학운동에서 이러한 경향을 대표했던 졸라(E. Zola)에게서 보이는 바와 같이 비현실적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낭만주의에 반대하여 객관적 사실주의를 추구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양의 자연주의는 나와 너의 구별이 없는 합일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조요한, 『한국미의 조명』, 열화당, 1999, pp. 55-56 참조). 그런데 현대의 구상미술에 적용되는 자연주의는 작가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신적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자연을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재현한다는, 다소 폄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11)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의 미의식』, p. 241.

으로 충실히 접근한다. 대상에 대한 시각적 객관성을 추구하며 시각적 정보의 공통성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의 전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공유된다. 디테일에 충실하다는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작가의 주관성이 가장 덜 나타나는 것 같으나 내용을 드러내기 위한 주제의 선택과 구성, 배치, 이상화 등을 통해 여타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주관성이 작용한다. 자연미와 자연으로서의 인간, 인간의 정신미, 삶의 환경 등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실재를 주관적 자의성을 부각시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오랜 재현 방식이었다. 재현된 것은 실제 대상세계와 같은 환영효과를 가지며, 이로부터 나온 정서는 삶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환기시키기 때문에 인식적 효과 또한 크다.

2) 본질의 유사성(범주2): 이 범주에서는 대상을 재현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작가가 파악한 대상의 본질이나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는 태도가 더 부각된다. 세부적인 것을 생략, 보완, 재구성하는 방식이 재현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작가는 보이는 것을 통해 대상의 내적 본질과 삶의 정서를 전달하는 것을 주된 예술의욕으로 삼는다. 주관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실재가 아니라 주관이 전유한 실재를 재현의 대상으로 삼는다. 시각적 정보에 의한 환영효과는 외적 유사성보다는 약화되지만 작가의 정서와 표현성이 강화된다.

3) 창안적 유사성(범주3): 이 범주에서는 작가가 보이는 것을 단순하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정보를 재조합, 변형시키거나 단순화시켜 재현하는 방식이다. 시각적 정보가 자연의 기호를 전달한다면 작가는 자연의 기호를 토대로 작가가 창안해낸 상징의 기호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기호는 표본과 도식이 되기도 하며 이를 인식하는 방법은 종종 지식과 경험에 의존한다. 재현된 것은 보이는 실제에서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실재로 이행되나 외적인 유사성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재현된 것의 기본 바탕은 객관적 실재를 전유하여 작가가 만들어낸 새로운 실재이다. 위의 두 재현방식보다 환영의 효과는 훨씬 약화되지만 작가의 개성과 주관성은 그 만큼 더 강화된다. 형태의 기하학적인 단순화와 변형, 구상에서 반추상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기법이 종종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재현방식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 작

가가 작품세계를 통하여 상이한 재현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는 흔히 있다. 중요한 것은 작가가 실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어떤 유사성의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현이란 결국 실재의 재현인데, 실제에 다가가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형상화의 의도와 미의식은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가와 무관하게 작가가 추구하는 실재에 따라 공통점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Ⅲ. 유사성의 유형에 따른 작가들의 작품세계와 미의식

이 논문에서 유형별로 분류하여 미의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구상미술작가들은 191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주로 활동했던 양화와 한국화, 조각 분야의 작가 약 60여명이다.<sup>12)</sup> 회화는 미술의 세부장르 중 재현미술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이므로 주로 회화작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외에, 몇 명의 조각분야의 작가들도 포함시켰다. 다른 작가들 중에는 주로 선전과 국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여러 작가들이 전 생애에 걸친 작품 활동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유사성의 유형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에는 한 작가를 여러 유사성의 유형에서 다루었다.<sup>13)</sup>

12) 다음은 작가들의 인명이다. 고회동, 구본웅, 권옥연, 권진규, 길진섭, 김경승, 김관호, 김기창, 김만술, 김만형, 김세중, 김영기, 김영주, 김용준, 김은호, 김인승, 김정숙, 김정현, 김종영, 김종태, 김주경, 김찬식, 김찬영, 김환기, 김홍수, 나혜석, 노수현, 도상봉, 류경채, 문학진, 민경갑, 박래현, 박상욱, 박생광, 박수근, 박영선, 배림, 변관식, 성재휴, 손용성, 안동숙, 안중식, 오지호, 윤승욱, 윤효중, 이마동, 이상범, 이용우, 이윤희, 이응로, 이인성, 이종우, 이중섭, 이쾌대, 임군홍, 임지순, 장우성, 장욱진, 천경자, 최영림, 허건, 허백련 등이다. 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과 『한국근대회화선집』(금성출판사, 양화1권-13권, 한국화1권-13권, 1990)에 수록된 작가들을 다루었고 그 외 평론가들과 미술사가들에 의해 많이 거론된 작가들을 보완하여 대표작가로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의 한계와 중요한 작가가 누락된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작가들의 작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했으나 가능한 한 생애의 각 시기마다 대표작이라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골고루 참고하고자 노력했다.

13) 외적 유사성(범주1), 본질의 유사성(범주2), 창안적 유사성(범주3)으로 나눌 때 한 작

미의식은 작가마다, 또 작품마다 너무도 다양하게 나타나서 다양한 정서적 개념으로 미의식을 유형화시키기는 어려웠다. 미의식에 대한 고찰은 크게 자연, 인간, 삶에 대한 작가의 표현의도로 접근하는 것이 그 특성을 추출하는 데 더 적합했다. 따라서 먼저 재현방식의 특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형식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 내용적인 측면으로 자연(풍경, 자연대상), 인간(인물화, 초상화), 인간과 삶(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미의식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외적 유사성<sup>14)</sup>

### 1) 양화

외적 유사성으로 분류되는 화가들은 주로 사실주의적 기법을 보여주는 화가들이다. 현상의 표면에 접근하여 실재를 포착하고자 하는 의도는 도상봉, 손웅성, 이종우, 김인승 등에게서 나타난다. 이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3차원적 양감과 자연색, 정확한 데생력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작가들이 사실적인 기법을 사용한다고는 하나 작가마다 독특한 개성을 잃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세부적인 디테일에만 집착하지 않고 전체의 조화를 중요시하며 때로는 큼직 큼직한 형태처리, 대담한 색채대비, 섬세하나 힘 있는 필치를 보여준다.<sup>15)</sup> 이들은

가가 두 가지 이상의 유사성의 유형을 보여주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작품세계에 있어서 범주1과 범주2를 모두 보여주는 경우: 김관호, 김인승, 변관식, 이상범, 장우성, 허백련 / 범주1, 범주2, 범주3을 모두 보여주는 경우: 김기창, 박래현, 김영기, 천경자 / 범주2와 범주3을 모두 보여주는 경우: 권옥연, 이종섭, 김영기, 김정현, 성재휴, 김종영 등. 이들 중 일부작가들은 추상미술까지 확장되는 다양한 유형의 작품활동을 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추상미술을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차후의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14) 외적 유사성에 속하는 작가 - 양화: 고희동, 김관호, 김인승, 도상봉, 손웅성, 이종우 / 한국화: 김기창, 김은호, 박래현, 배렴, 변관식, 이상범, 이유태, 장우성, 허건 / 조각: 김경승, 김세중, 윤승욱.

양화의 경우 이 유형의 작가들은 평론가들이 '묘사적 리얼리즘', '재현적 리얼리즘', '객관적 사실화'라고 부르는 경향에 가장 가깝다.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의 미의식』, pp. 215-217; 서성록, 『한국현대회화의 발자취』, 문예출판사, 2004, pp. 305-306 참조.

15) 이러한 기법적 특징은 이미 양화의 선구자인 고희동에게서부터 나타난다. 작가가 사

모두 충실한 양화기량과 밝고 신선한 색채기법을 보여주는데,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것은 화면 전체의 균형감이다.<sup>16)</sup> 특히 소재를 배치함에 있어서 구성의 미가 돋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조형적인 통일성, 구성의 엄격성과 안정감을 보여준다.

인체묘사에 있어서는 균형 잡힌 비례와 프로포션을 중시한다. 일부작가에게서는 서구적인 신체비례도 보이나,<sup>17)</sup> 대다수의 작가들이 작품화한 여인상, 나부화 등의 모습에서는 한국인의 인체비례를 보여주며 인물들의 분위기에서는 한국적인 감성을 느끼게 한다. 초상화에 있어서는 대개 사실적인 기법과 색채처리를 하고 있다. 자화상을 보면 그들은 이상화를 피하면서 현상의 표면에 겹겹히 접근하여 내면을 포착하고자 하는 의도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18)</sup>

인간을 둘러싼 삶의 환경에서는 안온한 정서가 배어나온다. 향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인물들에게서는 소박함과 선량함을 느낄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외적인 것의 현상을 통하여 그 당시 삶과 인간들의 분위기와 모습을 느끼게 한다. 이들이 보여주는 기법은 사실적인 기법이지만 이를 통하여 그들은 삶의 환경에서 풍기는 분위기와 정서, 조형미, 구성미와 색채대비의 조화 등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 2) 한국화

한국화 분야의 화가들은 한 작가가 여러 가지 기법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경

실적인 묘사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작가는 단지 보이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범한 형태감각, 화면의 구성미, 색채의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하는데 주력함을 알 수 있다. 고희동, <부채를 든 자화상>(1915).

16) 이 유형에 속하는 화가들은 대개의 작품에서는 매우 사실적인 화풍을 보이나 몇몇 작품은 세부적인 것을 생략하고 전체의 통일성을 중요시하는 대범한 터치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도상봉과 같이 아주 사실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화가도 <성관관풍경>(1953)과 같은 작품에서는 과감한 색채대비와 세부적인 형태를 생략하여 작가가 전유한 삶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17) 김인승의 일부 작품에서는 서구적인 신체비례로 이상화된 인체미가 보인다. <나부>(1936), <청>(1966).

18) 김관호, <자화상>(1916), 김찬영, <자화상>(1917), 김인승, <자화상>(1947). 이들 작가들은 외적 유사성을 통하여 작가로서 내면을 성찰하는 자의식, 정신성 등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

우들이 많다. 변관식, 이상범, 허백련 등은 외적인 유사성의 기법과 본질의 유사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김기창, 박래현 등도 구상에서 반추상, 추상까지의 기법을 다양하게 실험한다. 인물중심의 정교한 묘사는 김은호가, 자연의 시적 분위기는 이상범이, 전통산수를 근거로 한 내면의 정신적 세계는 허백련과 배림 등이 보여준다. 일부 작품에서는 한국화를 현대적 감성의 필법으로 처리한 기법들이 보인다. 이들이 구사하는 필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운생동하는 필법이다. 풍경묘사에 있어서 대개 전통산수기법을 바탕으로 한 넓게 트인 공간의미를 느끼게 한다. 그들은 자연을 객체화시키지 않고 주관은 자연의 일부로서 느끼게 한다. 자신이 파악한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여 한 작가가 하나의 기법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상이나 미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의도는 어떠한 사실주의 기법의 화가들에게서도 엿보인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위기와 정서를 통해 삶을 환기시킨다.

자연풍경을 묘사함에 있어서 작가들은 자연의 절경을 대면한 인간의 경외감을 표현하며 자연 속에서 인간은 겸허한 존재로서 표현된다. 이들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서 묘사하는 전통적인 자연관, 우주관을 표현하는데, 이를 실경을 통해서도 많이 표현하였다.<sup>19)</sup> 노수현은 관념 산수화의 이상주의적 맥을 계승하며 전통적인 양식에 충실한 사실적 기법을 보여준다.<sup>20)</sup> 변관식, 이상범 등에게서도 전통산수를 근거로 한 내면의 정신적 세계와 자연관, 우주관이 드러나지만 또 그들이 보여주었던 풍경들 중 많은 수는 이상적 자연이 아닌 실경이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자연의 절경이 아닌, 평범한 풍경 속에서 자연을 일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정서를 보여준다.<sup>21)</sup> 허건에게서도 실재의 경치나 광

19) 이유태, <설악영봉>(1965), 금강산 풍경을 그린 변관식의 여러 작품들(1959-1960), 허건, <금강산만폭동>(1948). 이들 자연의 절경을 그린 작품에서 자연을 대면한 인간은 주인으로서 자연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겸허히 경치를 완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 노수현, <춘하추동>(1920), <계산정취>, <추경>.

21) 특히 변관식에게서는 실제 보이는 평범한 자연풍경을 바탕으로 그린 산수화가 나타난다. <농가의 만추>, <호반풍일>(1961), <무창춘색>(1955). <진양성의>(1957)에 나타난 풍경 속에는 웅기종기 모여 있는 집, 개천을 건너는 노인, 빨래하는 아낙네 등 그 당시 삶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는 비슷한 선과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화면

경을 그린 작품들이 돋보인다. 그는 고향 인근의 야산과 들에서 한가로이 일하거나 거니는 사람들을 꼼꼼한 필치와 개성적으로 유형화시킨 형태로 그려냈다.<sup>22)</sup>

초상화, 또는 배경과 어우러진 인물화 분야에서 김은호와 김기창은 정교한 묘사와 섬세한 색채로 사실적인 묘사기법의 정수를 보여준다.<sup>23)</sup> 박래현이 사실적 화풍으로 그린 <군동>(1943)에서는 아이들을 통해 자연의 힘, 친진함, 율동감을 표현한다. 이들은 대상의 형상 하나하나에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보이는 외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정신성과 인격, 삶의 정서를 드러내고자 시도한다.<sup>24)</sup> 젊은이들의 군상에서는 지적이면서도 감정적인 젊은이들의 모습에 투영된 작가의 이상이 부각된다.<sup>25)</sup> 작가들은 인물화를 통하여 때로는 기계와 정신, 온화하며 선량한 품성, 자연에 순응하고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는 가족 간의 정(情), 특히 모성애가 부각되고 여인상에서는 한복을 단정하게 입은 여인들의 모습에 정숙함과 기품이 이상으로 투여된다.<sup>26)</sup> 이유태와 장우성의 작품에서 보이는 인물과 배경 구성요소들의 배치에서는 색채의 대비와 구성적 효과의 형식미도 두드러지지만<sup>27)</sup> 그들이 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삶의 정서이다. 작가들에게서는 때로는 현실을 반영한 작품도 나타난다.<sup>28)</sup> 그들은 때로는 리얼리티를, 때로는 이상과 낭만적 정서를 보여준다.

에 리듬감을 부여하는 독특한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22) 허건, <목포일우>(1944).

23) 김은호의 <최서형 초상>(1915), <이종건 초상>(1923), 김기창의 <가을>(1934), <정청>(1934), <모임>(1943).

24) 심지어 박래현의 <여인>(1942)에서는 얼굴이 가려진 여인의 뒷 자태를 통해서도 여인의 감정과 정신을 느끼게 해준다.

25) 장우성, <청년도>(1956).

26) 이유태의 여러 작품들이 주로 한정(閑庭)과 안은(安穩)한 정서, 가족들 간의 정(情)을 표현하고 있다. <후원>(1950), <화음탐구>(1944), <여인삼부작> 등.

27) 장우성, <화실>(1943)에서는 인물과 그들을 둘러싼 소재의 배치에서 오는 구성효과가 뛰어나다.

28) 장우성, <단절의 경>(1979).

## 3) 조각

조각 분야에서 외적 유사성에 속하는 작가들은 김경승, 김세중, 윤승욱 등이다. 조각의 특성상 인간이 주로 소재가 되는데 작가들은 외적인 것을 통하여 내적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의식은 자연미로서의 인간미, 외관을 통해 드러나는 영혼, 정신의 깊이와 온아함, 소박함 등의 정서가 드러난다.

2. 본질의 유사성<sup>29)</sup>

본질의 유사성을 추구한 화가들에게서는 외적인 유사성보다는 작가의 주관성을 통해 변형된 재현방식이 두드러진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기 보다는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변형시키려는 의도가 두드러진다. 그들에게서는 세부적인 것의 생략, 필치의 활달함, 형태처리의 대범함, 주관적으로 전유한 자연의 정서가 두드러진다. 신선한 색채감각, 세부적인 기교에 무관심한 대범한 필치, 전체의 조화를 중요시한다. 이들에게는 아카데미즘한 사실주의 기법보다는 인상주의, 표현주의, 야수파, 입체파 등 현대의 여러 미술운동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작품에서는 세부적인 사실성의 묘사보다는 화면전체의 통일성이나 작가의 개성이 엿보이는 주관적인 형태과약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자화상에서는 이상화나 미화 없이 자아와 대면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나타난다. 이들은 대범한 필치와 생략된 기법을 통해서도 작가 나름대로 표현하고자 한 본질에 다가하고자 하는데, 대개 그것은 주관적 정서에 호소하는 내용적인 것이다.<sup>30)</sup>

29) 본질의 유사성에 속하는 작가들 - 양화: 구본웅, 권옥연, 권진규, 길진섭, 김관호, 김용준, 김종태, 김주경, 김찬영, 나혜석, 오지호, 이마동, 이인성, 이중섭, 임군홍, 임직순 / 한국화: 김기창, 김영기, 김정현, 노수현, 박래현, 변관식, 성재휴, 이상범, 천경자, 허백련 / 조각: 김만술, 김종영, 윤효중.

30) 이인성, 권옥연 등 이 유형에 속하는 일부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평론가 오광수는 '정취적, 목가적 리얼리즘'이라고 부른다.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의 미의식』, p. 215 참조. 유사한 의미로서 평론가 서성록은 정감 있는 구상화로서 '목가적 사실화'라고도 한다. 서성록, 『한국현대회화의 발자취』, p. 306 이하 참조.

## 1) 양화

이 유형에 속하는 작가들 중 인상주의의 영향을 반영하는 작가들은 신선한 색채처리, 밝고 섬세한 빛의 효과, 대범하고 활달한 붓질, 순간적인 인상의 포착을 보여준다. 또 한편으로는 야수파와 표현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거친 필치와 마무리되지 않은 화면처리를 보여준다. 구본웅은 야수파와 표현주의의 영향을 반영하는 작가로 가장 많이 언급된다. 그의 작품에서는 상징적으로 사용한 색채, 강한 보색대비, 주관적으로 과약한 대상의 인상이 표출된다.<sup>31)</sup> 이중섭은 굵고 힘찬 표현적인 붓질로 상징성이 두드러진 작품과 작가의 이상향이 투여된 낭만적 세계관을 보여준다.<sup>32)</sup> 세부적인 묘사를 피하는 대범한 화법은 김종태, 김용준과 임군홍 모두에게 나타난다.<sup>33)</sup> 임직순은 큼직큼직한 형태감각으로 양감이 평면화된 효과와 개성적인 형태미, 구성미와 색채대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대표작인 <모자를 쓴 소녀>(1976)에서는 세부적인 완성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며 신선한 색채 효과로서 인상파적인 감각을 보여준다.<sup>34)</sup> 길진섭에게서는 주관적인 색채처리, 개성적인 형태미 등 작가가 대상으로부터 전유하여 만들어낸 세련된 조형감이 돋보인다. 기법적 특징에서 볼 때 이 유형에 속하는 화가들의 작품은 3차원적 입체감으로부터 벗어나 평면성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러한 특성은 누구보다도 권옥연에게서 나타나는데 그의 대표작 <고향>(1948)에서는 큼직큼직한 면처리, 원색의 색채대비, 색채의 상징적인 사용, 개성적인 형태미가 부각된다.

오지호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 신선한 감각으로 포착하며 인상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이루어냈다. 주관적 시각으로 자연의 인상을 묘사했지만 의도적인 구성방식을 보여준다.<sup>35)</sup> 김주경의 풍경화에서는 대담한 구도, 자연과 어우러진 안

31) <친구의 초상>(1935), <여인>(1935)에서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표현적으로 추출해낸 대상의 본질이다.

32) 전자의 경우는 <황소>, <싸우는 소> 등에서 후자의 경우는 <도원>(1953-54), <서귀포의 환상> 등의 작품에 나타난다.

33) 김용준의 <자화상>(1930), 임군홍의 <나부>(1936), <행려>. 작품에서 거칠고 미완성 효과를 보여주는 임군홍은 자신의 가족을 그린 작품에서는 훨씬 온아한 정서를 보여준다(<가족>(1950)).

34) 임직순, <여인좌상>(1956), <소녀상>(1959).

온한 삶의 정취와 밝고 경쾌한 정서가 가득하다.<sup>36)</sup> 이마동은 굵고 힘찬 선으로 작가의 정신적 기상을 드러낸다. 그의 대표작 <남자>(1931)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청년의 기상을 느낄 수 있다. 박상옥은 향토적 소재와 농촌의 소박한 삶의 정서를 보여준다.<sup>37)</sup> 향토적 소재<sup>38)</sup>를 보여주었던 작가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인성의 작품에는 분할적인 터치와 큼직큼직한 면 처리가 조화를 이룬다. 그의 대표작 <가을의 어느 날>(1934)에서는 자연의 녹색과 땅의 황갈색, 푸른 하늘의 조화에서 향토적 색채뿐만이 아니라 때 묻지 않은 자연의 원시성을 느끼게 한다.<sup>39)</sup>

35) 오지호, <사과밭>(1937), <남향집>(1939). <아내의 상>(1936), <나부>(1928) 등과 같은 인물화에서도 굵고 대범한 필치와 신선한 색채감각이 돋보인다. 오지호의 작품들이 대부분 청명한 색감을 보여주는 것과 대조적으로 작가는 자신의 초상만큼은 차분하게 가라앉은 어두운 색채로 표현했다(<자화상>(1931)). 오지호의 만년의 화초 그림들과 풍경은 마치 모네의 만년의 작품들처럼 색채의 어우러짐만으로 표현되어 거의 표현적 추상에 가까운 형태감각을 보여준다(<추광>(1960), <만추>(1968)).

36) 김주경, <가을의 자화상>(1936), <부녀야유>(1936), <소녀>(1935).

37) <소녀입상>(1936)에서는 농촌 아이의 순박하고 꾸밈없는 표정을 볼 수 있다. <유동>(1939), <한일>(1954), <연자방아>(1962), <양지>(1963) 등의 작품에서 그는 주로 세부적인 표현을 생략한 큼직큼직한 형태와 개성적인 필법으로 양지에서 노는 시골의 아이들, 자연과 어우러진 인간의 삶을 보여주었다. 그의 대표작인 <정물>(1934)에서는 소재의 힘찬 동세감을 느낄 수 있다.

38) 작가들은 소재를 30년대 이후 농촌의 향토적 삶의 모습에서 많이 구했기에 ‘향토적 소재주의’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농촌의 소박한 삶의 한 단면이 많이 묘사되었는데, 이는 한국인들에게는 향토적 소재이지만 선전의 심사를 받았던 일본인들의 눈에는 이국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였다. 주어진 삶에 체념적으로 안주하는 감상주의적 정서, 빈한한 삶의 퇴락한 풍경, 이국적 취향으로 지배자의 연민의 시각을 자극하고 이에 영합하고자 한다고 해서 향토적 소재주의는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많은 작가들은 이러한 삶의 정경을 통해 객관적·주관적 리얼리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향토적 소재주의의 비판에 대해 평론가 서성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삶의 풍경을 담았다는 점에서 위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가령 절구질하는 아낙네라든가, 한복 입은 여인, 전통적인 가옥이나 장터 풍경 및 시골경관 등은 굳이 일본인을 염두에 두고 채택된 이국 풍경이 아니더라도 그 시대의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을 엿보게 해준다”(서성록, 『한국현대회화의 발자취』, p. 308).

39) 이인성의 작품 <경주의 산곡에서>(1935)에 보이는 인물들의 인체비례, 얼굴의 표정과 분위기, 몸의 자세는 향토적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 2) 한국화

김기창은 <군마>(1963)를 통해 자연의 내적 힘과 생명을 기운생동하는 필법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김영기는 호방한 필치로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생명력을 보여준다.<sup>40)</sup> 김정현은 자연의 형태에서 기하학적 질서와 율동감을 발견하려고 하며 형태를 의도적으로 양식화시킨다.<sup>41)</sup> 성재휴의 수묵담채화는 개성적이고 힘 있는 필치, 때로 추상화시킨 대담한 묵선, 함축적인 형태들과 생략적인 기법을 보여준다.<sup>42)</sup> 이상범의 50년대 작품들에서는 짧고 리듬감 있게 끊어지는 활달한 필치를 통해 자연의 시적 분위기와 작가의 주관적 정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up>43)</sup> 장우성은 사실적인 화법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생명력이나 기를 과격적이고 대범한 붓질로 보여준다.<sup>44)</sup> 천경자는 개성적으로 양식화시킨 인물들, 화려하고 섬세한 색채, 평면적인 효과 등의 기법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상징적인 내용을 전달한다.<sup>45)</sup>

## 3) 조각

김만술은 사실적인 인체표현을 통해 작가의 이념을 본질로 부각시켰다.<sup>46)</sup> 윤효중은 인간의 자태에 나타난 형식미와 상징적 의미를 동시에 전달한다.<sup>47)</sup> 권진규는 실존적이고 구도적인 얼굴 모습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인간의 영혼을

40) <계림의 만추>(1983). 김영기는 대개 힘찬 필치로 자연대상을 리듬감 있게 표현한다. 그러나 일부 작품에서는 단순화시킨 도안 풍의 화법도 보여준다(<마>(1973)). 또 정취어린 고향마을의 풍경도 다루고 있다(<고향산하>(1979)).

41) 김정현, <백풍>(1954).

42) 성재휴, <강변산수>(1950), <달밤>(1955).

43) 이상범, <산가모연>(1952), <사계>(1956), <강상여락>(1959).

44) 장우성, <노묘>(1968). 장우성은 유사성의 여러 유형을 보여주는데 때로는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때로는 창안적으로 추상화시켜 보여준다.

45) 천경자, <전설>(1952), <두 사람>, <윤삼월>(1978). 인간내면을 드러내는 유형화된 여인상은 주로 80년대 작품에서 많이 나타난다.

46) 김만술, <해방>(1947), <역사 I, II>(1959-60). 작가는 전달하고자 하는 이념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인체의 비례와 자세 등을 적절히 변형시키고 있다.

47) 윤효중, <현명>(1942).



표현했다.<sup>48)</sup>

### 3. 창안적 유사성<sup>49)</sup>

창안적 유사성의 유형에서는 대부분 작가가 개성적으로 변형시킨 형태미가 나타난다. 조형요소를 평면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객관대상 보다는 작가의 주관성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작가는 다양한 정서를 통해 대상을 단순화, 또는 왜곡시키거나 추상화시키기도 하면서 개성적인 형식미를 보여준다. 추구하는 실체는 객관적인 실재에서 내적인 실재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한국화 작가들은 형상화방식에 있어서 매우 함축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이미지를 상징적인 기호처럼 사용하면서 우주와 자연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힘을 드러내고자 한다.

#### 1) 양화

창안적 유사성에서는 대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작가 나름의 새로운 창안과 발상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외적 유사성과 본질의 유사성 보다는 추상화경향이 훨씬 강화된 재현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김환기의 50년대 작품에서는 자연형태를 단순화시키고 기하학적인 기본 형태로 환원시킨 조형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작가는 항아리와 여인, 산과 달, 새 등 자연대상을 통해 한국적 멋을 구현하고자 한다.<sup>50)</sup> 김홍수에게서도 양식화되고 평면화된 효과가 두드러지며 동양적 소재와 서양적 감성의 혼용이 나타난다.<sup>51)</sup> 류경채는 표현적으로 추상화시킨

48) 권진규, <지원의 얼굴>(1967), <자각상>(1956).

49) 창안적 유사성에 속하는 작가들 - 양화: 권옥연, 김영주, 김환기, 김홍수, 류경채, 문학진, 박생광, 박수근, 박영선, 장옥진, 최영림 / 한국화: 김기창, 김영기, 김정현, 민경갑, 박래현, 성재휴, 안동숙, 이용로, 천경자 / 조각: 김종영, 윤효중, 송영수, 오종욱.

50) 김환기, <여인과 항아리>(1951), <산>(1958), <새와 항아리>(1958).

51) 김홍수, <군동>(1951-61), <한국의 여인들>(1959), <고녀>(1960), <사랑>(1973). 그는 형태를 불명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모호한 실재를 대하는 작가의 주관적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형태를 통해 쇠락해가는 자연과 감흥하는 주관적 정서를 보여준다.<sup>52)</sup> 문학진은 재질감이 강한 반추상적 기법으로 대상의 형태를 변형시키고 개성적으로 유형화시킨다.<sup>53)</sup> 박생광은 민속적인 소재나 민화로부터 차용한 소재, 채색기법을 적용하면서 민중의 삶을 환기시키는 미의식을 보여준다.<sup>54)</sup> 박수근은 화강암의 재질을 연상시키는 거친 마티에르에 차분한 회색조, 단순화시킨 형태를 통해 서민들의 소박한 삶의 리얼리티를 드러내고 있다.<sup>55)</sup> 박영선은 개성적으로 유형화시킨 인물 표현, 평면적 구성과 3차원적 양감이 공존하는 화면을 통해 인간의 존재조건에 대한 성찰, 서구적 감성을 느끼게 해준다.<sup>56)</sup> 장옥진은 어린아이의 그림과 같이 단순화시킨 평면적 형태를 통해 친진함과 위트, 자연과 삶에 대한 낙천적 세계관을 보여준다.<sup>57)</sup> 최영림은 모래의 까칠한 재질감과 부드러운 파스텔톤의 색감을 조화시키면서 친진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상을 설화적인 내용에 담았다.<sup>58)</sup> 권옥연은 후기의 작품 <소>(1960)에서 대상의 형태를 창안적으로 변형·평면화시킨 주관적 형태해석을 보여준다.

#### 2) 한국화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여 이미 외적 유사성과 본질의 유사성에서 고찰하였던 한국화분야의 작가들 중 여러 작가들이 또한 창안적 유사성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화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기운생동하는 필법은 창안적 유사성에서도 다시 보이나, 형태표현에 있어서는 단순화, 추상화가 더 강하게 나타나며 이미지가 때

52) 류경채, <페넬피 근방>(1949), <가을>(1955).

53) 문학진, <노란 코스튬>(1970), <누드가 있는 정물>(1978).

54) 박생광, <심장생>(1979), <무당>(1983), <창과 단청>(1983), <전봉준>(1985), <호랑이>.

55) 박수근, <아기를 업은 소녀>(1953), <기름장수>(1953), <들길>(1962), <길>(1964), <세여인>(1967).

56) 박영선, <파리의 소녀>(1956), <두 얼굴>(1956), <슈미즈의 여인>(1956), <세여인>, <파리의 서커스>.

57) 장옥진, <자화상>(1951), <나무 위의 아이>(1956), <까치>(1958), <앞뜰>(1969), <두 아이>(1973).

58) 최영림, <두 여인>(1962), <우화>(1968), <만개>(1972).

로는 기호화되기까지 한다. 많은 작가들은 서구적 감성을 혼용하여 평면적 구성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

김기창의 50년대 작품들에서는 입체적 양감을 배제하면서 대상을 간략한 형태로 평면화시켰다. 그는 장식성이 강한 선을 쓰면서 동양적 감성과 서구적 감성을 융합시키고 있다.<sup>59)</sup> 그의 60년대의 작품 <태양을 먹은 새>(1968)에서는 극히 간략한 형태의 암시로 자연의 내적 힘과 생명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박래현도 50년대와 60년대 초에 한국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모든 입체적인 것을 평면적인 것으로 해체시키고자 한 작품들을 보여준다.<sup>60)</sup> 민경갑의 작품 중 일부는 극히 간략하게 기호화되거나 평면적이고 장식성이 강한 형태감각을 보여준다.<sup>61)</sup> 성재휴는 생략적인 힘 있는 필치로 자연대상을 기호화시키거나 일정한 패턴으로 만들어낸다.<sup>62)</sup> 안동숙은 굵고 강한 먹선으로 우주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힘을 드러내고자 한다.<sup>63)</sup> 생애의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기법을 사용했던 이용로 또한 힘찬 필치와 극히 간략화한 형태로 삶의 양태와 자연의 리듬을 보여준다.<sup>64)</sup>

### 3) 조각

김중영은 자연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단순화된 양감을 보여준다.<sup>65)</sup> 그의 <가

59) 김기창, <구멍가게>(1952), <무당>(1956), <군상>(1957)과 같은 작품에서는 인체를 길게 왜곡시킨 새로운 형태미도 보여준다.

60) 박래현, <금붕어B>(1960), <노점>(1956), <조선여인상>(1959), <여인과 고양이>(1961). 대표작 <노점>에서 작가는 평면화시킨 형태효과를 통해 서민층의 생활상을 반영해내지만 실제 삶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 보다는 개성적인 형태미와 색채효과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 <조선여인상>(1959)에서는 여인들의 세계가 보여주는 섬세한 감성을 평면적이고 단순화시킨 면처리로 표현해내고 있다.

61) 민경갑의 50년대 작품인 <강강수월래>(1957)와 <동열>(1959)에서는 기호화된 형태미를, 70년대의 작품 <운>(1979)에서는 평면성과 장식성을 느낄 수 있다.

62) 성재휴, <기원>(1961), <청기와촌>(1977), <추>(1979).

63) 안동숙, <고향의 산천>(1970년대). 작가는 <망>, <시골 장날>과 같은 작품에서 일정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작품의 내용적 의미에 장식적·평면적 효과를 더한다.

64) 이용로, <영차 영차>(1950년대), <군어>(1977).

65) 김중영, <가족>(1955). 김중영은 구상에서 반추상을 거쳐 추상까지 다양한 기법을 보여준다. <소녀상>(1936)에서는 외적 유사성의 기법을 보여주고 50년대 후반에는 표현

족>(1955)에서 보이는 가족 간의 유대감은 윤효중과 송영수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sup>66)</sup> 이들 작가들은 형태를 단순화시켜 추상화가 강한 구상조각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오종욱은 변형되고 왜곡된 신체를 통해 어두운 삶의 체험과 내면적 리얼리티를 드러내고자 한다.<sup>67)</sup>

## IV. 한국근대구상미술에 나타난 미의식

이상과 같이 한국근대구상미술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유사성의 유형에 따른 재현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재현방식은 기법적인 측면에서 크게 유형화시킬 수 있으나 유형별로 그 경계가 아주 명확히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유형 간에는 무수한 이행과정이 존재한다. 더욱이 한 작가의 기법은 생애에 걸친 작품편력에 있어서 다양한 변모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그 작가의 전 작품세계를 일정한 재현방식으로 유형화시키기는 어려우며, 도식적인 유형화는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재현방식에 나타난 표현의도를 살펴보면 외적 유사성의 유형은 현상의 표면에 접근하여 실체를 포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다. 주관이 축소되며 객관이 더 부각되는 것 같지만 대상의 선택, 소재의 배치 등에 있어서 역시 주관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실적인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형상화방식에 있어서 모두 작가 나름의 개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질의 유사성에서는 주관적 시각으로 파악하고 체화해낸 실재, 즉 주관이 전유한 실재를 보여준다. 이 재현유형에서는 삶의 분위기적인 것과 정서적인 효과가 강하게 드러났다. 창안적 유사성에서는 객관을 바탕으로 주관이 고안해내어 새롭게 시각적으로 기호화한 실재가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의 시각적 기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때로 경험과 학습이 요구된다. 외적 유

적 추상조각을 보여주었다(<전설>(1958)).

66) 윤효중, <가족>(1952), 송영수, <가족>(1954).

67) 오종욱의 <이단자>(1961)에서는 용접조각의 거칠고 강한 마티에르와 일그러진 형태를 통해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전후의 인간상을 나타낸다.

사성에서 창안적 유사성으로 갈수록 작가의 주관성, 대상 해석과 표현의 자유로움과 독창성이 더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작가들이 다루는 소재와 표현의도에 따라서는 한 작가가 여러 가지 기법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외적 유사성을 추구하는 작가들은 인간과 자연, 삶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를 가지고 차분히 가라앉은 정서를 보여준다. 본질의 유사성에 속하는 작가들은 자연의 분위기와 삶의 정서를 더 역동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작가들은 자연에 대한 흥취와 삶에 대한 시적 정서를 많이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정신성이나 영혼 등 그들이 생각하는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는데 더 주력하고 있다. 창안적 유사성의 유형에서 작가는 독창적으로 변형시킨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주며 대상을 새롭게 해석하도록 만든다. 이 모든 재현방식에 감상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작가들이 단지 대상과의 유사성을 전달함으로써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다. 탁월한 작가는 단순한 선 하나를 그음에도 그 안에는 본질을 표현하는 어떤 힘을 느끼게 한다. 그 힘은 자연의 물리적 힘과 비감각적 유사성을 지닌다. 우리 또한 자연적 존재이므로 우리 안에 삼투되어 있는 그 힘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구상미술은 다양한 재현방식을 사용하여 삶의 온갖 측면,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현실을 반영해왔다. 현실은 개인의 내면적 정서와 사회적 현실을 모두 포괄한다. 여러 작가들은 또한 격동의 삶을 살던 민중의 모습을 다양하게 재현하였다.<sup>68)</sup> 개별적 삶의 체험이 고유한 만큼 미의식도 작가마다 고유하다. 그러나 하나의 민족이 체험했던 삶과 정서의 공유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며 한국의 구상미술작가들은 이를 나름대로 미의식의 소재로 삼아 작품 속에 반영해 왔다.

작가들 간에 가장 많은 공통성을 보여주는 미의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법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작가들은 생동하는 혼과 정신이 깃든 필법으로 대상을 재현하며, 세부적인 기교보다는 전체의 자연스러운 통일감을 보여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을 통하여 그들은 보이지 않는 내용을 담아

68) 김환기의 <피난열차>(1951), 이응로의 세태풍자화 <거리풍경>(1946), <피난>(1950)과 전란을 복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재건현장>(1954), 김기창의 <구명가게>(1952), 이쾌대의 <해방고지>. 작가들은 간단한 소묘화를 통해서도 삶의 리얼리티를 재현했다(구본웅, <깨어진 충무로>(1951), 박상욱, <야전이발관>(1952)).

왔는데, 자연을 묘사할 때는 주로 자연의 생명력을, 인간을 묘사할 때는 주로 정신성과 정서를 드러내고자 한다. 인간과 어우러진 환경을 묘사할 때 삶의 정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근대화되기 이전의 농촌의 삶을 묘사할 때는 소박한 삶의 환경을 고향처럼 아늑하게 받아들이는 낙천적인 정서가 두드러진다. 근대화된 실내 정경 속에 배치된 인물을 통해서도 지식과 예술을 추구하는 인간의 가치관이 반영된다.

자연과 인간, 삶을 묘사한 이 모든 재현방식에는 번잡하고 화려한 것을 멀리하며 평온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미의식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한국인들의 모습에 투영했던 정신적·미적 가치인 소박함, 선량함, 온아함은 격동의 세월을 겪으며 많은 변화를 보인다. 피난행렬과 전란을 복구하는 모습, 빈한한 도시 서민들의 모습에 고단한 삶의 체험이 반영된다. 대부분의 구상작가들은 자신이 속한 삶의 많은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작품 속에 자신이 내린 판단과 답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그들의 미의식도 함께 투영되어 있다.

## V. 맺음말

구상미술은 대상의 외관을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재현한다. 그러나 재현방식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보이는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차원까지 다양한 층을 내포하고 있다. 다수의 작가들은 삶에서 나타나는 온갖 정서와 정신적 의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다양한 기법을 선택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생애를 통하여 여러 유형의 기법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그 작가를 재현방식의 어느 유형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분류가 가능한 것은 특정 작품에 한해서이다. 재현방식은 유사해도 추구하는 미의식이 다르거나 상이한 재현방식임에도 미의식이 공통된 경우가 많다. 구상미술에 있어서 중요한 유사성의 유형은 외적인 닮음이 아니라 표현된 시각적 메시지가 촉발시키는 정서와 정신적 메시지와 닮음이다. 이렇게 작품의 모든 시각적 요소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전달한다.

한국근대구상미술 작가들은 유사성에 의해 대상을 환기시키는 다양한 재현

방식에 따라 외적인 삶의 모습과 내면의 현실을 반영해왔다. 그들은 이를 통해 인간 삶의 온갖 정서를 모두 포괄하는 다양한 미의식을 보여주었다. 미술사자들이 전통미술의 미의식을 탐구하면서 거론했던 수많은 정서적 개념들은 한국근대구상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에서, 또 한 작가의 여러 유형의 작품에서 다채롭게 재확인됨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외적 유사성에서 창안적 유사성으로 갈수록 작가의 주관적 시각과 개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작가들은 때로는 형식미, 정서, 삶의 리얼리티를, 때로는 정신적 의도와 미적 이상을 보여주었다. 한 작가가 다양한 재현방식을 구사하고, 또 다층적인 차원의 미의식을 보여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적인 것을 느끼고, 작품에 담아내고, 또 수용하는 모든 활동에 미의식이 작용한다. 이 미의식의 실체는 어떤 소재나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정서나 정신에 호소하는 것이다. 한국적 미의식은 단순한 소재나 묘사방식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형상을 통해 대상을 환기시키는 감각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정서와 정신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기에 내적이며 비감각적인 실재와 닮아있다. 한국적 미의식의 실체는 우리의 정서와 정신에 각인된 삶의 체험내용이다. 이 내용을 환기시키기 위해 작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소재, 또 눈과 마음에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형태와 색채는 한국인들이 영위했고 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환경과 닮아 있다.

### 핵심어

리얼리즘, 미의식, 본질의 유사성, 외적 유사성, 자연주의, 재현, 창안적 유사성, 한국근대구상미술

### 참고문헌

- Gombrich, E. H., *Art and Illusion*, Princeton U. P., 1972; 차미레 역, 『예술과 환영』, 열화당, 1994.
- Goodman, Nelson, *Language of Art: an approach to a theory of symbols*,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76; 김혜숙·김혜련 옮김, 『예술의 언어들: 기호이론을 향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 Lukács, G., *Die Eigenart des Ästhetischen*, Berlin: Luchterhand, 1963; 이주영·임홍배·반성완 역, 『미학』, 1권-4권, 미술문화, 2000-2002.
- 고유섭, 『한국미의 산책』, 문공사, 1982.
- 권영필,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 12인의 미학자들을 통해 본 한국미론 100년』, 돌베개, 2005.
- 권영필 외, 『한국미학시론』,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 김복영, 『눈과 정신』, 한길아트, 2006.
- 김영나, 『20세기의 한국미술』, 예경, 1998.
- 김윤수 외 57인, 『한국미술100년』,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한길사, 2006.
- 김이순, 『한국의 근현대미술』, 조형교육, 2007.
- 문명대 외, 『한국미술의 미의식』, 정신문화연구원, 1984.
- 서성록, 『한국의 현대미술』, 문예출판사, 1994.
- \_\_\_\_\_, 『한국현대회화의 발자취』, 문예출판사, 2004.
- 안휘준, 『미술사로본 한국의 현대미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야나기 무네요시, 『조선의 예술』, 문공사, 1982.
- 오광수, 『한국현대미술비평사』, 미진사, 1998.
- \_\_\_\_\_, 『한국현대미술의 미의식』, 재원, 1995.
- 윤범모, 『한국현대미술100년』, 현암사.
- 이구열, 『근대한국화의 흐름』, 미진사, 1984.
- 이구열 외, 『한국근대회화선집』, 양화 1권-13권, 한국화 1권-13권, 금성출판사, 1990.

- 이인범, 「백색담론에 대하여: 한국인의 미의식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학·예술학연구』 19집(2004), pp. 211-226.
- 이일, 『이일미술비평일지』, 미진사, 1998.
- 이주영, 「재현의 관점에서 본 예술과 실재의 관계」, 『미학·예술학연구』 22집(2005), pp. 5-38.
- \_\_\_\_\_, 「시각적 재현에 있어서 유사성과 실재의 관계」, 『미학·예술학연구』 24집(2006), pp. 259-289.
- \_\_\_\_\_, 「현대미술에 있어서 '비감각적 유사성'과 내적인 실재의 문제」, 『미학·예술학연구』 26집(2007), pp. 301-346.
- 장미진, 「한국의 미학과 한국미학의 방향성」, 『미학·예술학연구』 21집(2005), pp. 5-22.
- 조요한, 「한국미의 탐구를 위한 서론」, 『미학·예술학연구』 9집(1999), pp. 5-27.
- \_\_\_\_\_, 『한국미의 조명』, 열화당, 1999.
- 지순임, 「한국예술의 해석가능성: 한국미술에 나타난 미의 탐색」, 『미학·예술학연구』 11집(2000), pp. 7-18.
- 최열, 『한국근대미술비평사』, 열화당, 2001.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한국현대예술사대계』, 3-6권, 시공사, 2001-2007.

## Abstract

# The Consciousness of Modern Figurative Art in Korea

: In consideration of the analytical-methods of representation through different types of resemblance

Joo-Young Lee\*

In this article we are concerned with the classification of the works of Korean figurative artists into several methods of representation through different types of resemblance,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peculiarity of aesthetic consciousness in figurative art. These results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methods of representation can be classified, but their boundaries are not clearly divided into distinct types. Furthermore the techniques of an artist often show diverse transfigurations throughout their life time. In such cases it is difficult to classify the artist's entire body of work into a fixed type of represen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type of outer resemblance indicates the intentions of the artist, and how they approach the appearance of phenomena and try to grasp the reality of objects. In this case, the subject aspect of the artist looks minimalized, but the subject actually works in the choice of objects and in arrangement of the subject matter as well. Essential resemblance artists show reality grasped from a subjective standpoint, namely reality to themselves. Representing this type of reality, the atmosphere of life and the emotional effects are expressed in a very powerful way. Also, in inventive resemblance we can recognize the

\* MOEHRD-KRF Research Fellow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KRF-2008-327-G00014).

reality that the subject conceived and symbolized visually through the base of an object. To grasp such types of visual signs we need experience and learning. The more that resemblance ties from the outer to the inventional, the more that the subject of the artist's freedom and creativity of construction of objects and expression is intensified.

From the aspect of the expressive intentions of the artists, who are trying to get outer resemblance, they attempt to expose calm emotions with a contemplative attitude toward humanity, nature and life. The artists who have the tendency to stick to essential resemblance, make us feel more dynamically about the atmosphere of nature and the emotions of life. Through inventional resemblance, the artist tries to show creatively transformed visual images, and make us interpret objects in a new way.

A couple of the most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aesthetic consciousness shown by artists seems to be this. Technically, most Korean artists represent objects with a powerful stroke of the brush displaying vivid images of soul and spirit. They represent more, the sense of unity of the whole rather than technical skills in detail. They are trying to expose invisible contents in visible form. They depict nature representing the vitality of nature, while they depict human bodies, representing their spirit and emotion. In depicting the surroundings with humans, various feelings of life appear. When they represent the life of provinces, an optimistic emotion appears dominant, taking snug the humble circumstance of a life-like home. On the contrary, character sketches in modernized interior scenes reflect the sense of human values to pursue knowledge and art.

The methods of representation that depict nature, humanity and life, show an aesthetic consciousness that keeps clear of complicated and sumptuous things, pursuing calmness and the natural. The simplicity, goodness and grace which artists reflect in the appearance of Korean people have rapidly changed over turbulent periods. They showed symbolically, the images of taking refuge, in restoration of the disturbance of war, and other painful experiences of life. In these works, most figurative artists question the many problems in their lives, and they offer

suggestions through their works, reflecting also, their aesthetic consciousness.

### Key Words

aesthetic consciousness, essential resemblance, inventive resemblance, modern figurative art in Korea, naturalism, outer resemblance, realism, representation